

# 신당 지지율 급등... 단숨에 새누리당과 접전

## 내일신문 여론조사, 새누리 40.0% vs 신당 34.3%

### 리서치뷰에선 43.4% vs 41% 오차범위내 추격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지난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 선언 후 야권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통합신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통합 발표 직후인 지난 2일 오후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40.0%, 통합신당 34.3%로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5.7%포인트였다.

이는 통합신당 선언 전에 민주당 지지율(13.1%)과 새정치연합 지지율(13.5%)을

단순 합산한 26.6%보다 7.7%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됐다. 무당파가 34.6%에서 25.7%로 줄어들면서 줄어든 대부분을 통합신당이 흡수한 것이다.

통합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찬성(40.4%)보다 반대(45.5%)가 오차범위 내에서 더 많았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반대(69.9%) 의견이 월등했고, 민주당 지지자의 74.7%와 새정치연합 지지자의 74.2%는 공동신당 창당에 찬성했다. 이 조사는 유선·휴대전화 RDD

를 통해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3.9%다.

또 인터넷전문 '팩트 TV'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신당(41%)과 새누리당(43.4%) 간 지지율 격차는 더욱 줄어 2.3%포인트 차를 보였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고 응답률은 4.5%였다.

통합신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볼 때 서울(새누리당 36.4% vs 통합신당 42.5%)과 인천(새누리당 33.0% vs 통합신당 58.6%), 호남(새누리당 26.7% vs 통합신당 61.2%) 등에서 새누리당을 앞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충청(새누리당 58.6% vs 통합신당 33.6%)과 전통적인 정치적 텃밭인 대구·경북(새누리당 52.5% vs 통합신당 32.6%), 부산·울산·경남(새누리당 51.8% vs 통합신당 29.3%)에서 우세했다.

양당이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을 벌인 곳은 경기(새누리당 44.0% vs 통합신당 42.0%)와 강원·제주(새누리당 37.4% vs 통합신당 36.5%) 등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여론조사 추이는 창당 과정에서 양측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상당한 변동을 보일 수 있다"며 "아름다운 창당이 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지만 지분 싸움 양상을 보일 경우는 현재 지지율보다 더욱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진보단체 “교육감 추대 없다”

## 희망네트워크, 선거 관여 않기로

### 전교조 계열 단체 이합집산 예상

전교조 계열의 광주지역 진보단체 협의체인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가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3일 “오는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논란이 있는 장휘국 현 교육감의 추대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이 너무 달라 추대나 경선이나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는 후보추대 준비위나 추대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그

리나 장 교육감 4년의 성과와 과오를 평가하는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장 교육감의 재추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교조 계열 단체들의 이합집산도 예상된다.

72개 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이 단체 명의로는 후보 추대를 하지 않지만 소속 단체별로는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교조 계열 후보는 장 교육감과 정희근 광주시의원,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등이 뛰고 있다.

정희근 의원과 윤봉근 전 의장 측은 4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의 추모관을 방문한 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해 달라”

## 지역균형발전협, 정부에 건의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정갑윤)는 3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32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정부가 이달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만큼 이 대책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건의 과제를 만들었

다”고 밝혔다.

건의 과제에는 ▲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 확대 ▲ 산업시설용지 처분 제한기간 축소 ▲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완화 ▲ 신발전지역 승인권한 지방 이양 ▲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 미니 복합타운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들 과제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로 각각 발송됐다.

/연합뉴스

# 전남도·전남교육청, 선거 중립 자정결의대회

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은 3일 소속 공무원의 선거 중립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자정 결의대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선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행위 등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음성적인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남 선관위와 양 기관과 협의 아래 이뤄졌다.

이날 대회에는 전남도청 공무원 400여명,

교육청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관의 공무원 대표가 낭독한 후 소속 기관의 대표자에게 전달했다.

전남 선관위는 자정결의대회 후 공무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했으며, 3일부터 3월 7일까지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자정결의 주간으로 정하고 관내 22개 시·군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동서화합포럼’ 박정희 생가 방문

##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처음

전남지역 민주당 의원과 경북지역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이 3일 경북 구미의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둘러보고 기념 식수 및 기념 석 제막 행사를 한 데 이어 경북도지사와 교육감·구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함께했다.

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15일 동서화합포럼에 속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위치한 고(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찾은 데 따른 답방 성격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지연 전 원내대표는 “산업화의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과 민주화의 주역인 김대중 대통령은 1979년 불행한 사건으로 직접 손을 맞잡지는 못했지만 역사의 위안길에서 분명 화해를 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에 88고속도 예산 약 4100억,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의 고속도로 특정구역을 잇는 예산,

부산과 목포를 연결하는 철도 예산을 꼭 확보해 동서화합의 길이 소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18기념식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또다시 국민의 감동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병석(국회) 의장님과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금년도 5·18기념식에서는 이 노래를 공식적으로 제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선관위원장에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선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대 위원장에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을 선출했다고 3일 밝혔다.

신임 장병우 위원장은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



다. 장병우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를 구현하고 지방선거가 흠 없이 공정하고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15평(실 9평) 1세대**

- 12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38평(실 22평) 1세대**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급매가 1억원

**77평(실 46평) 1세대**

- 20층, 최상층, 전망 좋음, 사무실 전용, 울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29평(실 18평) 1세대**

- 10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53평(실 33평) 2세대**

- 13,19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주거 겸 사무실, 울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13층) 1억2000만원(19층)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의 010-4667-9300**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 ▶ 경매 낙찰 물건에 돈 빌려 주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